

내·관외 이동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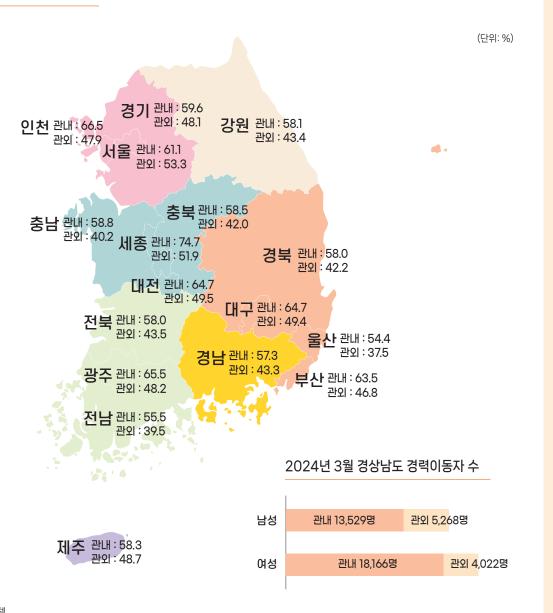
김보배 연구위원

1. 경력직 근로자 이동 현황

| 2024년 3월 직장을 옮긴 경남 경력직 근로자 수는 총 40,985명이며, 이 중 여성이 22,188명(관내 18,166명, 관외 4,022명), 남성 18,797명(관내 13,529명, 관외 5,268명)으로 여성의 수가 3,391명 더 많음

| 경남은 관내로 직장을 옮긴 경력직 근로자의 여성비율은 57.3%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고, 관외로 직장을 옮긴 경력직 근로자의 여성비율은 43.3%로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음

2024년 3월 시도별 경력이동자 중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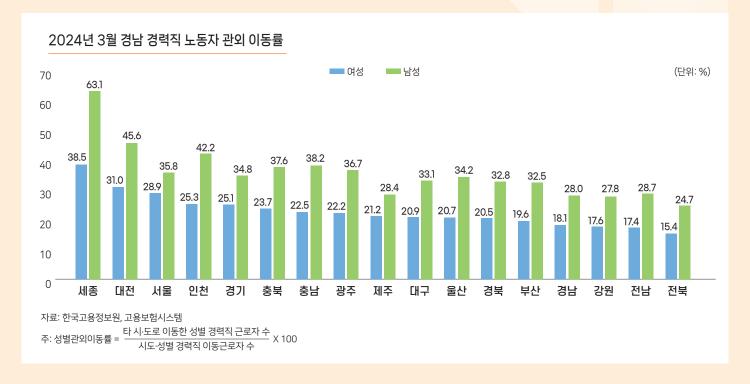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

- 주: 1) 경력직 이동자수는 해당월에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재취득 신고한 상용직 또는 자영업 피보험자 수로 동일 피보험자가 해당월에 여러 사업장에서 상용직 또는 자영업으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최근 재취득 사업장 기준으로 한명으로 계산함
 - 2) 경력직 관외 이동자 수는 해당월에 이전 사업장 소재지역(시·도) 이외의 타시·도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상용직 또는 자영업 피보험자 수

2. 경력직 근로자 관외 이동률

| 2024년 3월 관외로 직장을 옮긴 경남 경력직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18.1%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음



3. 경력직 근로자 관내 이동률

| 2024년 3월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동한 경력직 근로자는 여성이 3,965명, 남성이 5,649명으로 유입된 지역은 여성과 남성 모두부산, 서울, 경기 순으로 많았음

│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동한 경력직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이 62.3%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 음식·숙박업(17.2%), 광공업(15.8%) 순으로 나타남

